

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

수많은 종상화산, 영구동토, 광활한 평야 등은 다이세쓰산 국립공원의 일부로 홋카이도 중심부에 있는 시카오이초 전체를 포함하는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북극권과 유사한 숲을 가진 지질공원은 북방우는토끼의 아종 등 희소 동식물의 생명도 지켜주고 있습니다. 화산 활동과 한랭 기후는 지형과 생물 다양성에서부터 이 지역의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

지질공원에서는 시카오이 북부에 있는 시카리베쓰 화산군과 남부의 도카치 평야를 중심으로 홋카이도의 지질학적 진화를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방문하는 분들은 지질 작용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, 동결과 융해로 인해 풍화된 사면인 ‘암괴사면’과 여름에는 차가운 공기가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나오는 ‘풍혈’ 등의 주빙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지질공원에서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산책, 카누 체험, 열기구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은 홋카이도에 있는 여러 지질공원 중 하나로 총면적이 약 405km²에 이르며, 일본에서 유일하게 ‘혹독한 추위’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. 홋카이도에는 그 밖에 도야호 우스산 지질공원, 아포이산 지질공원, 미카사 지질공원, 시라타키 지질공원, 도카치산 지질공원이 있습니다.